

토종 과실 따기의 현장!

산과 들이 갈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결실의 계절 가을. 일상을 잠시 접고 추억 속으로 들어가보자. 시골에서 자란 이들이라면 밤 줍기, 사과 따기 같은 어린 시절의 삽화가 생각나는 요즘, 이런 추억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밤의 수확기는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30여 일. 때문지 않은 자연 속에서 아람이 절로 벌어진 밤을 따고 줍노라면 하루 해가 짧게 느껴진다. 양 발로 가시를 누르고 꼬챙이로 꺼내는 알밤 따기의 추억은 수확의 기쁨과 함께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해준다.

◇ 서울 근교에서 밤줍기 여행을 떠날 만한 곳으로는 경기도 용인시 '서전농원(031-332-8037)'을 꼽을 수 있다. 수확 시기가 다른 각종 밤나무가 골고루 있어 수확기가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로 긴 것이 특징.

5만여 평의 넓은 산자락에 5천여 그루의 밤나무가 밀집해 있다. 농장 가운데 산책로가 있고 100여 마리의 사슴을 비롯해 진돗개, 토끼, 오리, 토종닭을 키우는 동물농장이 있어 자녀들과 함께 찾는다면 자연학습장으로도 그만이다.

입장료는 10,000원이며 5kg까지 주워 갈 수 있다.

🚗 가는 길 = 영동고속도로 양지IC를 빠져나와 양지사거리에서 양지리조트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농장 표지판이 보인다.

◇ 경기도 가평군 명지산 계곡에 자리한 '푸름유원지(031-582-8868)'는 밤나무숲에 마련된 방갈로에서 숙박하면서 맛있는 토종밤을 마음껏 주울 수 있는 곳이다. 1만3천여 평의 숲에 3백여 그루의 토종 밤나무가 늘어서 있다. 청정한 공기과 맑은 계곡물, 그리고 노랗고 붉게 타오르는 명지산 단풍을 감상할 수 있어 가족단위 소풍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입장료는 어른 10,000원, 어린이 5,000원이며 일정한 범위(4kg) 내에서 주운 밤을 가져갈 수도 있다.

🚗 가는 길 = 서울-구리-경춘간도로 코스를 잡은 뒤 가평에서 북면 명지산 쪽으로 들어가면 된다.

◇ 이와 함께 가평 밤골유원지(031-581-0003)와 한갑골 사과마을(031-584-8130)도 권하고 싶다. 밤골 유원지는 14만평의 넓은 대지에 밤나무가 빼곡하다.

1인당 5천원만 내면 자기가 주운 밤을 가져갈 수 있고 방갈로도 운영하고 있어 휴식을 즐길 수 있다.

가평군 설악면 신천 4리에 자리한 한갑골 사과마을은 전형적인 한촌으로 근처에 홍천강을 위시해 다양한 볼거리가 흩어져 있어 가족들과 찾아볼 만하다.

🚗 가는 길 = 밤골유원지는 상봉터미널에서 가평행 직행버스를 타고 가평까지 간 다음 다시 적목리로 들어가는 일반 버스를 갈아타고 도대 2리에 내려 걸어 들어가면 된다. 한갑



골 사과마을로 가려면 설악면 모곡리 모곡버스 종점에서 내려 다리를 건너 왼쪽 강변을 끼고 들어간다.

◇ 천안시 북면 위례산 기슭에 자리잡은 '유성농원(041-553-3120)'은 밤나무 농장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옥관, 이평 등 알이 굵고 좋은 개량종 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드넓게 펼쳐진 야산의 풍광이 좋아 테이트 코스로도 그만이다.

자신이 주운 밤을 직접 구워먹을 수 있는 취사장도 있고 취사도구도 대여해 주며 별장식 방갈로가 있어 묵어갈 수도 있다.

숙박료는 1인당 1만원, 입장료는 어른 5,000원, 어린이 3,000원이며 밤값은 별도로 계산한다. 보통 4kg에 1,500원 정도다. 인근에 독립기념관이 있어 함께 둘러볼 만하다.

🚗 가는 길=목천 IC-사거리-우회전-2km-연춘교 다리 건너 기 전에 좌회전-북면 쪽으로 곧장 11km 가면 표지판이 보인다.

◇ 9월 중순부터 밤농원을 개방할 예정인 '논산 밤나무농원(041-732-7979)'은 약 3만평 규모로 크고 작은 밤나무가 지천이다. 이곳에서 나는 밤은 저장밤으로 질이 좋다. 가을이 되면 알밤이 툭툭 떨어지는 밤나무숲을 거닐 수 있고 바구니에 직접 주운 밤을 사갈 수도 있다.

이곳에서는 밤요리를 직접 맛볼 수 있다. 닭에 밤을 듬뿍 넣고 삼과 마늘, 대추 등과 함께 푹 고아낸 밤닭백숙과 밤묵, 밤빈대떡, 밤국수가 별미이다.

숙박도 가능하다. 입장료 1,000원. 밤값은 보통 1kg에 2,000-2,500원 정도다.

식당을 겸한 농산물 판매장과 주차장, 놀이터, 잔디마당, 원두막이



갖춰져 있다. 계백장군 묘소, 갑사, 관촉사, 탐정저수지, 계룡산이 지척에 있다.

🚗 가는 길=경부고속도로-회덕분기점(호남고속도로)-서대전IC-논산 쪽으로 난 1번 국도-연산사거리를 지나 황산벌휴게소와 주유소 건너편에 있다.

◇ 충남 대산면에 있는 '동원관광농장(041-669-0120-1)'은 관광농원 중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으로 식당과 콘도, 연수실을 갖추고 있어 가족 동반 나들이로 좋은 곳이다. 사과나무와 장미넝쿨로 뒤덮인 정원이 운치 있다. 콘도 요금 1가족당 4만원.

10월 말에는 사과 따기 행사가 열리는데 이곳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당도와 품질이 전국 제일을 자랑한다.

농원 안에는 골프연습장, 운동장 등이 있으며 뒷산에 삼림욕장이 있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농원에서 가까운 삼길포항은 서해안 나들이의 명소다.

🚗 가는 길=서해안고속도로-당진-서산-대산(농장은 난지도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에서 있는 팻말을 끼고 시골길을 따라 계속 들어가면 된다.

◇ 이 외에도 밤이나 사과를 맛보며 가족끼리 휴식을 취할 만한 곳으로 농협에서 소개하는 농원이 몇 군데 있다. 가평 막골 사과마을(안대농협:가평농협(031-582-2390), 청주에서 중평 방향으로 10km 정도 떨어진 유유관광농원(043-250-8688-9), 세교관광농원(043-250-7237), 웅천 두룡관광농원(041-933-2005) 등이다.

